

2009. 5. 4 제214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동성애자의 사랑을 존중하자' 캠페인 (베를린)
2. 이색적인 체험 마을을 관광명소화 (상하이)

산업·경제

3. 민생 안정 위해 기본 장례항목 가격을 정부가 결정 (북경)

건강·복지

4.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 네바다州)
5. 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멘탈 프렌드' 자원봉사 (도쿄)
6. 비정규직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도쿄)
7. 10년 후 도시의 건강지표 마련 (북경)
8. '가정의'와 계약해 건강 관리 (북경)
9. 양로기관 노인 대상 일괄 양로보험 가입 (상하이)

방재·안전

10. 위성을 이용해 화재 진압 (북경)

목 차

도시환경

11. 에코 드라이빙 지원기기 장착 비용 보조 (도쿄)
12. 식물 쓰레기를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 (브라질 쿠리치바市)
13. 교통의 '섬'이던 곳을 생태 분수공원으로 재조성 (런던)
14. '자연 속의 런던' 사업으로 생태자원 보전 (런던)
15. 대도시의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사진 공모전 (베를린)
16. 스포츠와 행사를 위한 환경 지침서 '그린 챔피언' (독일)
17. 환경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 보급 위해 보조·용자제도 강화 (도쿄)

도시교통

18. 공공 자전거 대여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독일)
19. '자전거 타면서 배우기' 프로젝트 실시 (브라질 상파울루市)
20. 관광마차 운행 지침 (베를린)
21. 수상버스도 교통카드로 통합 이용 (런던)
22. 새로 조성되는 문화관광 중심지를 위한 교통 계획 (베를린)

1. ‘동성애자의 사랑을 존중하자’ 캠페인 (베를린)

○ 베를린市는 동성애자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없는 도시 이미지를 위해 2009년 4월 ‘사랑은 존중되어야 한다’ 캠페인을 벌임.

- 베를린市는 포스터 2만 부를 제작해 464개의 학교와 250여 곳의 市 공공 광고게시판에 부착함.

· 포스터에는 여자 동성애자끼리, 남자 동성애자끼리, 그리고 남녀가 입맞춤하는 3개의 장면을 그려놓았음.

- 그동안 이민자 사회 출신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범죄 사건이 증가해 왔음.

· 특히 회교도 문화권의 이주자는 동성애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함.

- 베를린市는 이민자가 주로 사는 지역구에서 이민자 단체 및 종교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각 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 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확대할 방침임.

(www.berlin.de/rbmskzl/rathausaktuell/archiv/2009/03/17/123252/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4/14/125418/index.html)

2. 이색적인 체험 마을을 관광명소화 (상하이)

○ 상하이市는 최근 린펀(臨汾) 마을을 ‘세계박람회 체험 여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 4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함.

- 린펀 마을은 1980년대 건설된 전통 가옥이 잘 보전된 곳으로, 17개 거주지에 6만여 명이 살고 있음.

- 상하이市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마을 모습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고자 린펀 마을 일대를 ‘아름다운 마을 생활’을 테마로 운영할 계획임.
- 마을 문화센터, 서비스센터, 전통생활 등 9곳의 이색적인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통무용이나 창극, 서예 등 40여 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현재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7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운영 중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30812.html)

산업 · 경제

3. 민생 안정 위해 기본 장례항목 가격을 정부가 결정 (북경)

○ 북경市는 최근 장례용품에 대하여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장례항목 서비스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문이므로 폭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함.

- 장례용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해 현재 요금 기준이 있음.
 - 하나는 시체 운구 및 화장, 유골 보존과 같은 기본적인 장례항목 서비스로, 행정부문의 관리 대상임.
 - 다른 한 부분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부문임.
- 2004년 5월 북경市가 장례용품 생산 허가 제도를 취소함에 따라 장례용품 시장은 완전히 시장화됨.
 - 시장화되면서 수의나 유골함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짐.
 - 북경市는 최근 12개 장례용품 판매회사에서 파는 유골함의 가격을 상한 500위안(약 10만 원)으로 하도록 권고함.

(北京晚报, 2009. 4. 8)

4.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 네바다州)

○ 네바다州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 중임.

-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나 주택,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택 등 모든 ‘저렴한 주택’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네바다州는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행 중인 유타州를 모델로 함.
 - 유타州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에이즈 환자 등이 좀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고 각 주택의 대기 목록도 포함함.
 - 이 데이터베이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저렴한 주택’ 기금을 보조받을 것으로 기대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기금은 주정부의 ‘저렴한 주택 신탁기금’(Affordable Housing Trust Fund)을 이용할 계획임.

(www.sacbee.com/state_wire/story/1777609.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네바다州의 ‘저렴한 주택’ 데이터베이스는 주거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시장 및 재고 정보와 노인 등 주택사용자인 인구·가구정보, 가정폭력 등 주거입지 선택에 중요한 주거환경 정보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
 - 다양한 유형의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활용성을 높이고, 주택 정보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주택 관련 정보시스템들은 여러 기관에 산재돼 운영되고 있음.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국토해양부의 ‘건축정보시스템(e-AIS)’, ‘주택전산망’, ‘부동산거래정보(RTMS)’,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전산망’, ‘주택통계시스템’ 등이 있음.
- 다양하고 풍부한 주택 관련 정보가 있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은 제한적이고, 주택 행정을 위한 내부적인 사용 측면이 강하며, 여러 주체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음.
- 주택 정보 외에 관련 인구·가구·주거환경 정보와 연계성이 약함.

/신상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5. 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멘탈 프렌드’ 자원봉사 (도쿄)

- 도쿄都是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놀이 상대가 되어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멘탈 프렌드’ 제도를 운영함.
- 멘탈 프렌드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는 도쿄都에 거주하거나 도내 직장인 또는 학생이어야 하며, 연령은 18~30세임.
 -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와 정열을 가지고 평일 낮에 2시간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본 사업 관련 연수와 각 아동상담소의 연수도 참여해야 함.
- 자원봉사자는 아이의 가정이나 아동상담소를 방문하여, 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함.
 - 활동계획은 아동상담소 직원의 조언과 지도 아래 결정함.
 -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해주며, 활동비로 1회당 2660엔(약 4만원)을 지급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4/22j4d200.htm)

6. 비정규직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도쿄)

○ 도쿄都是 비정규직 사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임금·교육 훈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환경 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이 사업은 ‘트라이(Try) 기업’과 ‘모델 기업’으로 나뉘어 지원함.
 - 새로 고용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트라이 기업은 파견된 사회보험 노무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에게서 무료로 조언을 받아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 이미 고용 환경 정비를 실시한 모델 기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도쿄都 홈페이지와 홍보 잡지 등에 소개함.
- 모집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 300명 이하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가운데 도내에 본사나 주요 사업소가 있는 중소기업임.
 - 파트타임 사원을 실제로 고용해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4/22j4g100.htm)

7. 10년 후 도시의 건강지표 마련 (북경)

○ 북경市는 2009년 4월 면역정보 관리시스템 기반 확충을 가속화할 계획임. 시내 355개 병원에서는 4월 1일부터 전염병 예방 조기 경보 예측을 통해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해 감염 경로를 엄격히 통제할 것임.

- 10년 후 북경市의 구체적인 건강지표를 발표함.
 - 시민의 건강상식에 대한 이해도를 85% 이상으로 높임.
 - 1인당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현 13.4g에서 10g 이하로 낮춤.
 - 1인당 하루 유지방 섭취량 현 54.6g에서 35g 이하로 줄임.
 - 성인 남성 흡연율 현 57.7%에서 절반 이하로, 여성 흡연율은 현재 4.6%에서 4% 이하로 낮춤.
 - 매주 3회 이상 운동의 비율을 현재 34.1%에서 50%이상의 비율로 올림.
 - 초등·중학생 비만율을 현 17.28%에서 15% 이하로 낮춤.

(京报网, 2009. 4. 13)

8. ‘가정의’와 계약해 건강 관리 (북경)

- 북경市는 ‘신의료개혁방안’ 공표 이후,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중임. 북경市는 앞으로 새로운 계약식 지역공동체 건강관리 모델을 내놓아 ‘가정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주민과 의사가 건강 관리 계약을 맺고 ‘가정의’로 정식 등록함.
 - 의사에게는 ‘가정의’ 서비스 계약인 수, 계약 실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예정임.
 - 가정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주민은 서비스 수준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의사와 계약할 수 있음.
 - 북경市는 또한 새로운 공립의료원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음.
 - 의료 서비스의 합리성, 안전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등이 모두 의료평가 지표에 포함됨.
 - 평가 결과는 공립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투입 보상에 영향을 주게 됨.
- (www.ben.com.cn/bjxw/bjsz/ssxw/200904/t20090409_513585.htm)

9. 양로기관 노인 대상 일괄 양로보험 가입 (상하이)

- 상하이市는 도시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복지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하이市 양로기관에 소속된 노인을 대상으로 양로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함.
 - 상하이市는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보험사 3곳과 함께 사업을 추진함.
 - 65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노인보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함.
 - 2008년 5월부터 상하이市 보험협회와 복지기관에서 상하이市의 50여 개 양로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함.
 - 모든 보험료 지급은 시행방안에 근거하여 양로기관이 부담함.
 - 보험업계는 양로기관과 시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상하이市 전역에서 시행할 양로보험을 사회종합보험, 화재보험과 결합한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임.
-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4/13/content_16231640.htm)

10. 위성을 이용해 화재 진압 (북경)

○ 북경市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안 되는 외진 곳에서 위성신호를 활용해 산림 화재 진압을 시작함.

- 이동 위성 통신장치를 통해 외진 곳의 산림화재 진압은 현장 직접 방송이 가능함.

· 후방에서 소방 지휘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편리해진 것임.

- 2009년 3월 15일~4월 15일은 춘계 산림 방화를 엄격히 금지하는 시기로, 산림소방국은 5만여 명의 생태계 관리보호 인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음.

(www.ben.com.cn/bjxw/bjsz/ssxw/200904/t20090403_513046.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북경市의 위성신호 활용 산불 진화 사례는 외곽 산림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한 것임.

· 북경과 달리 서울에서는 외곽 산림지역에서도 대부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함.

· 서울시 본청, 자치구 및 소방재난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산림감시원 충원, 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활용, 재난관리 CCTV 활용, 산불진화용 장비 확충, 유관기관 합동 진화 훈련 등 서울에 적합한 산불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임.

- 위성신호를 활용한 산불진화가 소방관, 진화장비, 현장 지휘소를 연결하는 첨단 관제시스템의 성격이라면, 향후 첨단 소방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시기에 참고할만함.

/원종석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jswon@sdi.re.kr)

11. 에코 드라이빙 지원기기 장착 비용 보조 (도쿄)

○ 도쿄都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으로 에코 드라이브 추진이 효과가 큰 수단으로 평가됨. 따라서 도쿄都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지원기기 장착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함.

- 에코 드라이브 지원 기기는 운전 데이터와 사고 등에 대한 영상 기록이 가능함.
-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비용 지원 대상이며, 다음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함.
 - 도쿄都 환경 확보 조례에서 규정하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해야 함.
 - 운행 관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교육 훈련·지도 등의 체계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지도 등 실시 상황 및 운전자가 스스로 급유량 등을 기록해 집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기기 장착 전후의 주행 내용을 도쿄都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g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의 경우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30%이며,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수송부문에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수송부문의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성 달성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에코 드라이빙을 통해 10% 가량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확산정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 때문에 운전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에코 드라이빙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운전자 스스로 운전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교처럼 운전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미 일부 기업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에코 드라이빙의 효과를 탄소배출권과 연계해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으므로, 서울수도 시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적 지원 여부를 고려할 필요성 있음.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2. 식물 쓰레기를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 (브라질库里치바市)

- 库里치바市는 공원 및 광장 환경미화 작업 중 모은 떨어진 꽃잎, 줄기, 잎 등의 식물 쓰레기를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음.
 - 市 환경국 청사에는 식물 쓰레기를 모아 유기농 비료로 만드는 장소를 설치함.
 - 비료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0일 정도임.
 - 이 작업을 통해 비료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운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축구장의 30배 크기인 바리귀 공원에서는 15일마다 200m³의 식물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중 20%는 비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완전 분해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6081)

한 줄 뉴스

● 상하이

- 관광과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해주는 '상하이 여행 카드' 2009년 6월 출시
- 2009년 5월부터 숙박시설의 체크아웃 시간을 이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2009년 4월 9~11일 '세계관광자원박람회' 개최
- 2010년 엑스포 개최에 맞춰 300여 대의 친환경 버스 포함한 1000여 대의 신에너지 차량 운행 계획

13. 교통의 ‘섬’이던 곳을 생태 분수공원으로 재조성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150만 파운드(약 29억 8000만 원)를 투자해 런던市 명소 중 하나인 마블아치에 분수를 만들고 나무와 잔디를 심고 색 조명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시설을 설치함.

- 마블아치는 1800년대 로마의 개선문을 본떠 만든 역사적 유물이지만, 쇼핑가인 옥스퍼드가와 하이드 공원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혼잡한 교통 흐름의 섬이 되어 버렸음.

· 역사 유물을 자연조경 사업 및 분수 설치로 시설을 개선할 뿐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마블아치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원하느냐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해 왔으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음.

(www.thelondonpaper.com/thelondonpaper/news/london/news/plans-to-transform-marble-arch-into-an-oasis-of-greenery-and-fountain)

14. ‘자연 속의 런던’ 사업으로 생태자원 보전 (런던)

○ 영국의 자연보호집행기구인 ‘Natural England’는 시민이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런던의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게 하는 ‘자연 속의 런던’(Natural London) 사업을 시행함.

- 도심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미화 사업을 벌이고, 앞으로 런던市에서 시행하는 신개발사업의 경우보다 생태적인 도시로 유도할 계획임.

·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산책할 수 있는 자연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자연 속에서 지킬 뿐 아니라 산책문화를 장려함.

- 런던市는 녹지가 많은 도시가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함.

(www.thelondonpaper.com/thelondonpaper/green/news/new-green-vision-for-the-capital-to-be-unveiled-in-lambeth)

15. 대도시의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사진 공모전 (베를린)

○ 베를린市 자연보호협회는 ‘야생조류의 세계’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함.

- 베를린市에는 아직 많은 야생조류가 살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새가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야생조류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함.
- 베를린市 자연보호협회는 야생조류에 대한 보호의식을 환기시키고, 2010년 2월의 ‘자연보호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마추어 사진작가들과 시민이 찍은 야생조류의 사진을 모집하기로 함.
 - 사진은 야생 조류의 아름다움, 생활 행태, 새와 인간이 함께 사는 도시 등의 모티브를 담아야 함.
 - 베를린市 안에서 찍어야 하며, 2009년 말까지 응모할 수 있고 2010년 자연보호의 날에 시상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4/nachricht3402.html)

16. 스포츠와 행사를 위한 환경 지침서 ‘그린 챔피언’ (독일)

○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와 올림픽위원회가 함께 발행한, 스포츠와 행사를 위한 환경지침서인 ‘그린 챔피언’(Green Champions)이 국제 올림픽위원회에서 스포츠와 환경 부문 IOC Award를 수상함.

- 그린 챔피언은 스포츠 및 행사 계획과 실시에서 환경 콘셉트 적용을 위한 방향 잡기 지침임.
 - 대규모 국제 행사만이 아니라 작은 지역의 행사에도 참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친환경적 행사와 경기를 어떻게 조직하고 진행할 것인가?
 - 행사와 경기 진행에 관련된 현재의 환경법 개요

- 행사장과 경기장의 올바른 선택
 - 행사장과 경기장 건설 및 개조 시 재료, 교통, 에너지, 물, 자연경관, 소음 처리
 - 행사 조직과 진행 시 교통, 에너지, 물, 자연경관, 소음, 급식, 쓰레기 처리
- (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3613.php)

17. 환경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 보급 위해 보조·용자제도 강화 (도쿄)

- 도쿄都是 자동차 부문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실시하고, 저공해·저연비 차 도입 촉진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여러 시책을 강화함.
- ‘환경보전 자금 용자 알선’ 사업으로, 차량에 대한 이자 보조율을 1/2에서 3/4으로, 신용 보증료 보조율을 2/3에서 4/5로 확대함.
 - 신규 사업으로는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우량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시 동급 차량과의 가격 차액분 1/4을 보조함.
 - ‘차세대 자동차 도입 보조’ 사업을 신설하여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할 경우 동급 차량과의 가격 차액분 1/4을 보조함.
 - 환경 감세로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년간 면제함.
- 차량을 이용해 사업하는 기업에 대해 용자 및 보조를 해줌으로써 저공해·저연비 차 보급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7300.htm)

한 줄 뉴스

- 도쿄
 -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기 쉽게 ‘로케이션 맵’ 작성
- 북경
 - 10대 건축물 선정에 온라인 투표로 시민 참여 활발

18. 공공 자전거 대여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독일)

○ 대중교통과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서로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두 교통수단이 환경정책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

- 독일연방 교통부는 2012년까지 공공 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발에 1000만 유로(약 175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독일 도시연구소에서는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공공 자전거 대여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을 찾고 있음.
- 각 시와 지역 또는 교통회사나 협회는 모델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6월까지 응모할 수 있음.

(www.bmvbs.de/Presse/Pressemitteilungen-1632.1070775/
BMVBS-startet-Ausschreibung-1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의 자전거 정책은 2002~2012 독일 연방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근거함.
 - 이 정책으로 2012년부터 독일에서 자전거는 교통계획, 도시계획, 국토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됨.
 - 연방정부는 지방과 도시에서 자전거 정책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1억 유로(약 1800억 원)를 도로의 안전과 문화를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도시에서 공공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결을 통해 자전거가 편리하며 안전하고 빠른 이동수단으로 시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는 미래의 ‘부드러운 이동 수단’이며 녹색도로 실천을 통한 ‘길 르네상스’의 핵심이 될 자전거 정책을 아직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실정임.
 - 서울이 진정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조정해,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로 자동차 없는 길을 확충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부터 확보해야 할 것임.
- 기본적인 길 문화를 조성한 이후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비로소 길의 르네상스가 열릴 것임.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19. ‘자전거 타면서 배우기’ 프로젝트 실시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자전거 타면서 배우기’ 프로젝트를 기념하기 위해 8000여 명이 강변도로 8km를 자전거로 횡단하는 캠페인을 벌임. 상파울루 시장이 행사에 참가해 자전거로 일부 거리를 횡단하기도 함.
- 상파울루市 문화사회개발재단은 자전거 2000대를 준비해, 인구 5000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 시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기증할 계획임.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포츠 장려뿐 아니라 공립학교 학생의 운송수단으로도 이용해 일거양득임.
-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도 대여용 자전거를 좀더 지원할 계획임.
 - 6개월 전부터 실시된 지하철역 자전거 대여 정책으로, 이미 5252명의 시민이 7646번 대여해 사용했고 현재 202대가 대기 중임.
- 현재 상파울루市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23개 있으며, 2009년 말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임.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323/not_imp343145,0.php)

한 줄 뉴스

- 워싱턴 D.C
 - 부활절 기간에 백악관을 시민에게 개방해 달걀 굴리기 행사 개최
- 베를린
 -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부활절 기간에 올림픽 경기장과 광장, 스포츠 박물관 무료 개방

20. 관광마차 운행 지침 (베를린)

○ 앞으로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 보호청의 규정에 따라 베를린市에서 관광마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말 관련 지식을 증명해야 하며, 업무 장부를 기록해야 함.

- 현재 베를린市의 관광명소 구간을 운행하는 마차는 모두 40여 대임.
 - 그동안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베를린에서는 관광마차 운행도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동물 보호와 교통안전 규정은 미흡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를린市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안전한 마차 운행 규정과 지침을 마련함.
 -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규정과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말의 업무시간은 하루 최대 9시간임.
 - 말에게는 30분씩 두 번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땅에서 휴식시켜야 함.
 - 마차에는 온도계를 설치해야 하고, 기온이 30도가 넘을 경우 매 2시간마다 30분씩 말을 휴식시켜야 함.
 - 마차는 공식 인정기관을 통해 차체에 대한 기술적 안전시험을 거쳐야 하고 등록번호를 부착해야 함.
 - 마부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통해 말과 마차에 관한 지식을 증명해야 하며, 모든 업무를 시간별로 기록해야 함.

(www.morgenpost.de/berlin/article1073020/Berlin_fuehrt_Fuehrerschein_fuer_Kutscher_ein.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4/14/125419/index.htm)

한 줄 뉴스

● 브라질

- 상파울루市, 대학병원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의무로 공중화장일 안내 책자 발간
- 살바도르市,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화장(火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21. 수상버스도 교통카드로 통합 이용 (런던)

- 2009년 가을부터 템스 강에서 운행하는 통근 수상버스의 대부분 구간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Oyster Pay As You Go)를 쓸 수 있게 됨.
 - 도심을 통과하는 기차 구간에서 선불교통카드 통합 운영을 시작한 이후, 교통카드 활용 범위를 한 단계 더 확대해 투명한 교통 행정과 함께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것임.
 - 선착장 소유주, 통근보트 운영회사, 기초자치단체, 런던교통공사가 편리한 요금제도 도입 및 개선, 선착장 운영, 승객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River Concordat 협약' 덕분임.
 - 선불교통카드 이용 확대는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후 첫 사업임. 앞으로 타워브리지 인근의 선착장 확대사업 등이 시행될 계획임.
 - 런던市는 시설 투자와 민관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수상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2012년 올림픽에는 템스 강과 런던市를 잇는 수상 대중교통 체계가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통근보트를 운영하고 있는 템스클리퍼스(Thames Clippers)社は 2008년 한해 27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음.
 - 앞으로 선불카드 이용이 확대되면 수상보트 이용객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1479.aspx)

22. 새로 조성되는 문화관광 중심지를 위한 교통 계획 (베를린)

- 베를린市는 가장 큰 문화사업으로 새로 조성될 문화관광 중심지를 위한 새로운 교통 계획을 발표함.
- 새 문화관광 중심지는 현재의 관광명소인 '박물관 섬'(Museumsinsel)과 복원될 '베를린 성'(Berliner Schloss: 1950년에 철거된 성으로, 2010년부터 복원 시작), 성 뒤편에 만들어질 '훔볼트 포럼'(Humboldt-Forum: 아시아, 아메리

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문화와 예술의 전시 및 교류 공간으로서 설립)이 중심이 되고, 주변에 있는 훔볼트 대학과 베를린 시립 도서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문화구역으로 조성됨.

- 베를린市 교통부는 문화 건축물 건립을 통한 도심의 공간적 변화와 관광객 증가로 도심 교통이 변화할 것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교통 계획을 발표함.
 - 방문객의 교통 이용방식: 약 70%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통해 진입하고 외지 관광객의 25%는 관광버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지하철 연결: 2017년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 훔볼트 포럼을 연결
 - 중심도로 콘셉트: 현재 이곳을 가로지르는 대로는 베를린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차단이나 우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함. 도로를 유지할 경우 충분한 횡단보도와 광장 마련, 도보자용 새로운 연결공간 마련을 위한 설계 공모전 실시
 - 관광버스 교통계획: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주차하고 주차장을 찾는 과정에서 도심교통과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함. 터미널 콘셉트(Terminal-Concept: 관광버스가 목적지까지 진입하여 손님들을 내린 후 주변에 마련된 관광버스 특별주차장에서 관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방식)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
 - 2011년부터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한 교통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버스 진입과 출발 시간을 접수·감시해 실시간 주차공간 상태를 알림.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4/nachricht3395.html)

한 줄 뉴스

● 런던

- 2009년 4월 24일~5월 4일 '느리게 가자' 축제 열어, 느린 삶으로 삶의 질 제고 하자는 메시지 전달

● 로스앤젤레스

-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3만 6000여 명의 공무원 중 3000여 명 감축 결정